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71호 현대불교
2010년 2월 17일(음 12월 4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오직 사람부터 돼야 道가 저절로 붙어 돌아갑니다

부처님 법에는 정월이다 해우년이다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는 정월이 있고 새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한층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 몸은 바로 부처님의 법당과 같은 것이므로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이 법당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그 법당 속의 모든 자생중생들을 제도하고, 한마음으로 조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근본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겨울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할 것도 없이 생활이 공부지마는, 하여튼 마음의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모임을 항상 갖는데, 지금 불사가 빨리 되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미안할 것도 없지요. 이 모든 것이 본래는 더불어 같이 한집이니까요. 그래도 집을 빨리 장만치 못해서 올 겨울에 많이 추웠죠? 그리고 오늘도요.

그러니까 한층 더, 이 법당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법당 속에 바로 자부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자부처가 없으면 내 몸뚱이가 움직여도 될 수도 없거니와, 보고 듣고 행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침체해 들어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본으로 봐서는 죽고 사는 생사가 들이 아니요, 영원한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 법당은 낡으면 다시 헐고 또 짓지만 이 마음의 근본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얼마나 진실하나 하는 모든 것이 그 대뇌에, 즉 뉴진의 그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서 피쳐 못하고, 현실로 차근차근히, 감졌던 것이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손을 가슴에 얹고 진실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원리에서 모가 난 것이라도 동글게 쓸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법행제법회는 서로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또 대답해 주고 하는 것도 한 도반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나이는 먹었다고 해도 마음공부 하는 것은 마치 세 살 먹은 어린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물러서 구멍이에 빠지게 될 때, 빠지지 않게 붙들고 하면서 다 배우는 거나 같습니다. 어느 거 하나 내 은사, 스승이 아닌 게 없습니다. 돌 하나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하다못해 티끌 하나도 버림이 없이 스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승이 아니라 서로가 더불어 같이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부처고 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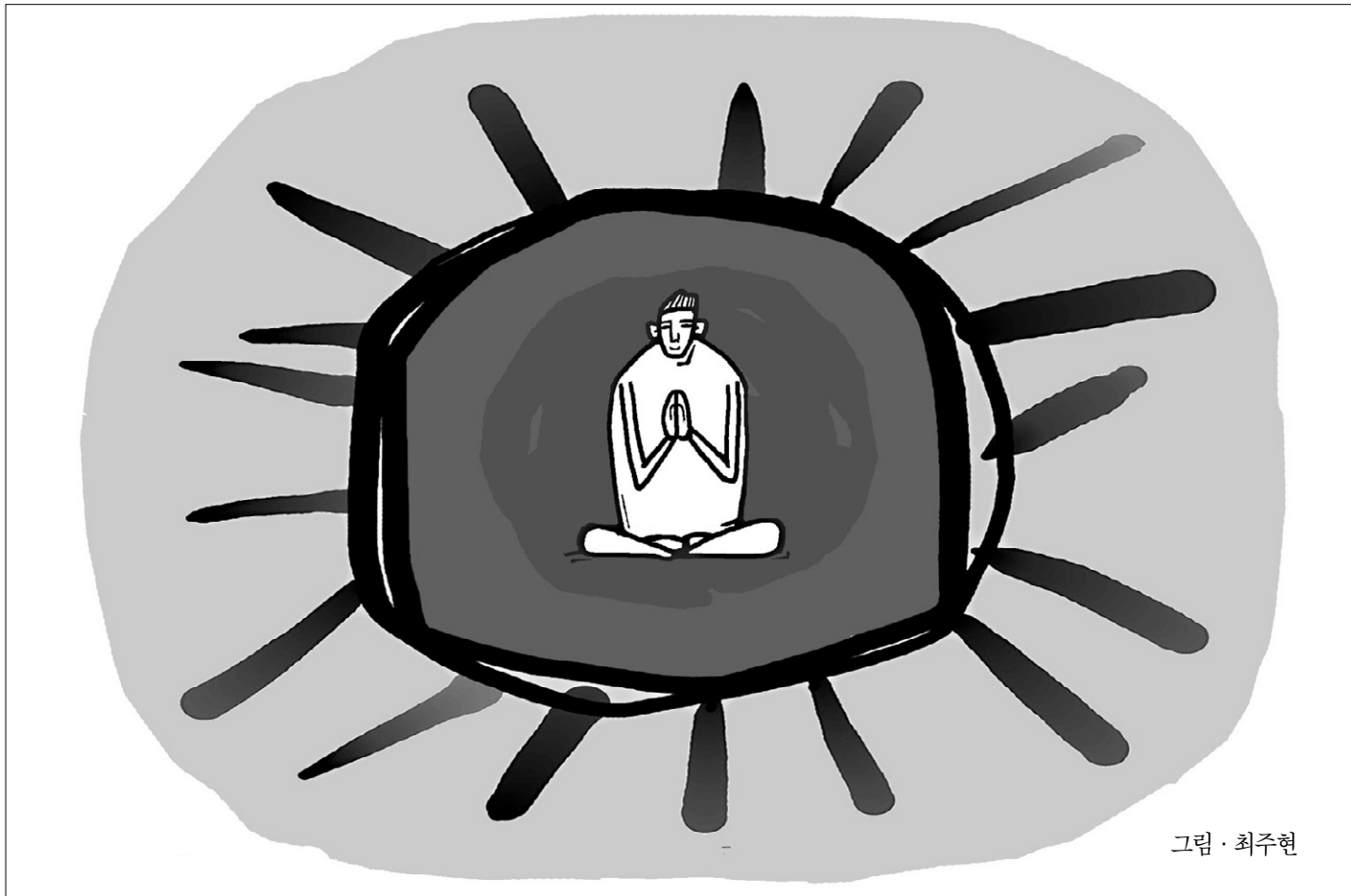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 부처가 아니고 할 게 없습니다. 부처라는 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써 하시는 것이 진실된 행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을 부를 수 있고 서로 만날 수 있고 하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 이름이 여러 가지 행을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이름일 뿐입니다. 여래라는 이름도 이름일 뿐이지 그 이름 속에 실현하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남): 대구지원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마음요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초발심자들에게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큰스님께 여쭙어 볼까 합니다. 『한마음요전』 원리편에 “불성은 영과 다르다.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모습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은 각자 생각내는 그릇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불성은 더함도 덜함도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돌아간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같이 선원에 한 3, 4년 다닌 사람들은 불성이다, 주인공이다, 마음이다 또 영혼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을 묶어 가지고 크게 바라보면 빛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발심자들은 ‘불성은 영과 다르다.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하는 부분과 ‘모습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큰스님께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사람마다 다 본체가 있습니다. 근본 본체, 즉 말하자면 본체라는 것은 근본과 이 체와 들이 아닌 그 자체를 본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기에 그 불성 자

체를, 하늘과 땅을 기준해서 불기둥이라 한다. 불(佛)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직결이 돼 있고 우주와도 직결이 돼 있고, 이 모든 일체만물이 자라는 그 땅과도 합류화가 돼 있습니다. 천지가 합류화돼 있듯이.

그래서 그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끼고, 수레가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사윤회 일체가 돌아가는 것이 그 기둥을 끼고 돌아가는데, 그 기둥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그 능력만 배출해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다못해 자동차가 가는 것도 바퀴를 굴리려면 그 심봉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바퀴를 켜 그 심봉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바퀴가 굴러가게끔 그 힘만 배출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은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지

금 돌아가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바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못 쓰면 그 바퀴에 나쁜 게 감기고, 또 좋은 마음을 써서 악이 거기에 붙어 있지 않다면 선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그것을 바로 영(靈)이라고 그립니다. 영! 그리고 혼백(魂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본 불성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내되, 악하게 쓰면 안 되니까 선하게 쓰라 이러는데, 부처님의 마음공부에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다 보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쓰다 보면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쓰다 보면 악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양면을 다 보라 이겁니다. 그 양면을 놓는 법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일러 드리는 그것입니다. 선은 감사하게 놓고, 악은 ‘악이 나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악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그 자리.’ 하고 모두 거거다가 입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질문자(남): 그런데 큰스님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 영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선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 속에 불성과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큰스님: 같이 있지만 이 영혼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에 인과가 붙어 있습니다. 영혼에,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데에 악한 인연도 선한 인연도 모두 합쳐서 인연이 되죠?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듯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누진이라고 이름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입력이 되는데, 즉 말하자면 과거의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또는 인과성·윤회성·업보성·세균성·영계성 이 모두 다섯 가지를 합친 그것을 바로 인연삼아서 영혼이 자기 그릇대로 차원대로 정자 난자를 택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강릉에게 갈 것은 강릉에게 가고, 금한테 갈 것은 금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이 되는데, 이 몸속에도 가족이 돼 있고 바깥에도 가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은 강릉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납니다. 구성되는 것이 이렇게 철두철미합니다. 우연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은 강릉대로 만나니까 ‘누구의 탓도 하지 마라, 서로 강릉의

26면으로 계속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법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4분할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가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기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사찰 CCTV 설치

대덕큰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